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4. 21.(일) 12:00
(지 면) 2024. 4. 22.(월) 조간

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뭉쳤다

-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전수조사 후 문제점 분석·개선방안 마련
- “일단멈춤” 캠페인 추진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▲보행로 전수조사, ▲보행 시설 확충, ▲관리 강화, ▲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.
- 우선,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.
 -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*의 보행로,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,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“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”을 수립한다.
 - * 전국 16,490개소(초등학교 6,295, 유치원 6,830, 어린이집 3,065, 기타 300)
- 또한,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(200억)와 교육부 특별교부금(89억)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.
 -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, 곡선부·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·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.
 -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.

- 아울러,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 -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*한다.
 - *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(24.1월 ~ 12월 말, 경찰청)
 -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,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마지막으로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.
 -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,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.
 -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“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”도 실시한다.
 -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. 또한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“일이삼사*” 캠페인도 추진한다.
 - * **일**단멈춤, **이**쪽저쪽, **삼**초동안, **사**고예방
 -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이다.
-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”라며,
 - “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,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210)
		담당자	서기관	민경조 (044-205-4229)
<공동>	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용하 (044-203-6657)
		담당자	사무관	이인혜 (044-203-6662)
<공동>	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	책임자	과 장	김수환 (044-202-3580)
		담당자	사무관	장태준 (044-202-3593)
<공동>	경찰청 교통기획과	책임자	과 장	이서영 (02-3150-2051)
		담당자	경 감	이흥천 (02-3150-0611)